

■민주 공심위 “호남 현역의원 30% 교체” 1차심사 마무리

“올것이 왔다” 지역구 실사 초비상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에서 호남지역 현역의원들 가운데 30%를 1차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켰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 진영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들은 최근 실시된 지역구 실사 결과와 당내 여론조사 결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공심위의 향후 일정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역의원 반응**=공심위의 발표가 전해지자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과 함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최근 실시된 당내 지역구 실사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중앙당의 철저한 보안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확한 실사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일부 현역의원들은 당내에서 실시된 실사결과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다가 하버 당내 인사들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 도 의원은 “공심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광주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의 절반(열동연 의원 불출마)인 3명이 교체된다는 얘기”라며 “사실상 대량 학살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공천 배제 발표 시기**=공심위는 공천 배제 대상 발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다음달 3일경에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역의원들의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달 9일까지 공천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2차 공천 심사도 다음달 4~5일경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천 배제 현역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종 후보를 정하는 국민여론경선과 전략공천 지역은 다음달 7~8일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전 박재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3일경 명단 발표...후보들 정보 수집 총력 일각선 “물같이 폭 너무 적다...쇄신 의지 의심”

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호남지역 공천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최종 공천은 다음주 12~13일경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반응**=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심위의 30% 현역의원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물같이 폭’ 현역의원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물같이 폭’이 너

무 적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차에서 30%의 현역의원 교체가 이뤄진다면 2차 심사에서 많아야 1~2명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폭이 역대 총선 평균인 40%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의 생존 여부와 접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역의원들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재승, 공심위원 ‘군기잡기’

“회의내용 2~3시간도 안돼 밖으로 새 나가” 격노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26일 공심위원들의 회의내용 유출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회의를 못한다”며 ‘군기잡기’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회의에서 비리·부정전력자 배제 등 구체적 공천기준과 관련한 전날 회의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일부 공심위원이 요청해서 회의 내용을 밖으로 발설하지 않기 위해 서약까지 했다. 그런데 불과

2~3시간 만에 구체적인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갔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하면 회의를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무서워서 밖으로 (회의 내용을) 말하면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도 집어넣었다가 됐다”며 “그렇게 서약서를 만들었고, 아무리 (제가) 앞전하게 접근해도 (공심위원들이) 받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라고 훈계했다.

그는 또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를 못한다. 어제 회의 주제에 대해서는 향후로 미룬다”며 “오늘은 밖으로 나가도 괜찮을 문제만 토의하겠다”며 비리·부정 전력자 배제 등 구체적 공천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뒤로 미뤘다.

박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관련, “문제점을 바로 얘기해달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말해달라”며 “두부뭉술하게 얘기하고, 전 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만 하면서 자기견해 없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일부 공심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심위 회의시작에 앞서 손학규 대표는 박 위원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러 “박 위원장은 매제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며 “여러분 손에 민주당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공천쇄신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탈당 전력자’ 복당 딜레마

심사위 “不可 vs 포용” 팽팽...강운태 입당 결론 못내

통합민주당이 공천 신청 접수가 보류된 강운태 전 의원 등 탈당 전력 인사에 대한 복당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들은 우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복당 심사를 거쳐 복당이 허용돼야만 공천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되나 심사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원자격심사위는 26일 오후 1차회의를 갖고 지난 2006년 6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대선행보를 하다가 2007년 8월 통합민주당에 반대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강(광주 남구) 전 의원, 지난해 대선 전 탈당해 참주인연합 대표로 정근모

후보 지원에 나섰던 김선미 의원과 대선 직후 새로운 정치참여를 내세워 탈당했던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 등에 대한 복당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행 당규 ‘당적을 이 탈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공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 ‘원칙적으로는’ 탈당 전력 인사들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이미 탈당했던 인사들이 공천을 신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과 당 화합과 포용 차원에서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화합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2차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복당 심사를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지역 출마를 검토하다 뜻을 접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복당이 아니라 ‘재입당’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6년 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당원직을 상실했던 만큼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낸 탈당 전력 인사들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논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자원 외교’ 연일 강행군

취임 이틀째...몽골 대통령 등 7개국 연쇄 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취임 이틀째를 맞아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주요 변수가 될 외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외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을 지원해준 데 감사한다”면서 에너지 개발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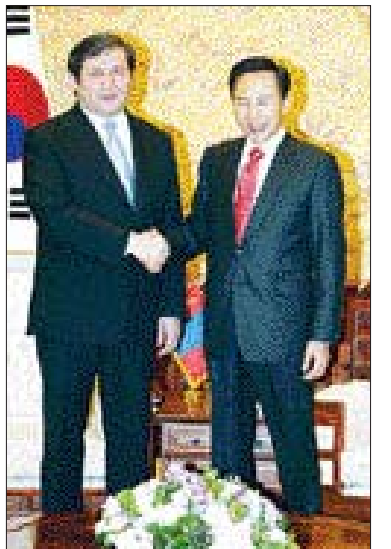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또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취임 당일인 25일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 단지 사업에 참여할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협정서와 대우인터내

셔널의 35-36 육상광구 탐사계약 체결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남미인 영호바야르 몽골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 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스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나카소네 아스히로 전 일본 총리, 간 나오모 일본 민주당 대표대행, 슈가에프 카자흐스탄 부총리, 헤리 켈킨스 호주 하원의장을 각각 접견하는 등 이날 하루만에 7개국 대표단과 회동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담은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자원 개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전하고 공동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미인 영호바야르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를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표하면 공짜” 선관위, 4월 총선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중앙선관위는 4·9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공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증 지급한 뒤 이를

보여주면 공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선관위가 지난 2006년말 투표를 제고 차원에서 국

회에 도입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논란을 거듭하다 국회 정치특위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승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00 / 02-722-0100

10255300-9999